

『醫方類聚』에 인용된 『保童秘要』와 朝鮮前期 小兒醫學

이 가 은, 안 상 우

韓國韓醫學研究院

Abstract

Bodongbiyo quoted in Euibangryuchui and Pediatrics in the Early Chosun Dynasty

Lee Ga eun, Ahn Sang woo***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 Joint
Program*,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Bodongbiyo is an old medical book, which can be traced by its texts quoted in the pediatric part of Euibangryuchui. A notable fact is that its record does not remain in China, and relevant records are found only in Korea. The book is believed to have been widely used until the early Chosun Dynasty. The present study purposed to examine how records on Bodongbiyo have been handed down until today and to answer questions on the author of the book through investigating the quoted texts. In addition, we tried to get a glimpse of early pediatrics remaining in the book.

From this study were drawn conclusions as follows.

A. The oldest record about Bodongbiyo is found in the history of King Taejong in Joseonwangjosilrok, and its contents remain in the form of quotations in Hyangyakjipseongbang and Euibangryuchui. The fact that there are several records on Bodongbiyo, which cannot be traced in Chinese literature, means that the

categories of medicine were so extensive in those days. Moreover, this proves the existence of pediatrics as a special medical area in the early Chosun Dynasty.

B. *Bodongbiyo* is known to have been written by Yoo Wan so, but there are some questions and, in fact, its contents including the theory of fever are contradictory to Yoo Wan so's medical theory. A number of books that have been published recently in China under the title *Bodongbiyo* contain the original commentaries of *Euibangryuchui* and the contents of Yoo Wan so's other books. They are likely to throw confusion into future researches.

C. *Bodongbiyo* is believed to have been read widely in the Koryo Dynasty and the early Chosun Dynasty. Through examining its texts, we found that the book takes a different course from *Soayakjeungjikgyeol*. This provides a lead to the understanding of pediatrics in the early Chosun as well as to further research on pediatrics in the mid Chosun Dynasty represented by *Dongeuibogam*.

1. 서론

『保童秘要』는 현재 대중적으로 그다지 알려진 바가 없는 실전 의서로, 원 모습을 가장 자세히 볼 수 있는 기록은 『醫方類聚·小兒門』에 인용되어 있는 것이다. 『醫方類聚』는 세종 때(1445년) 1차 완성된 후 성종조에 간행된 현존 최대의 한의방서로, 당시 최고수준의 의학이 집대성된 의서이다¹⁾. 따라서 조선 전기 의학의 중심에 있는 서적이라고 하겠다. 필자는 조선 전기의 즉 『東醫寶鑑』 이전의 소아의학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연구할 목적으로 『醫方類聚·小兒門』을 보던 중, 이 책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保童秘要』라는 책에는 몇가지 주목할 만한 점이 있는데, 한가지는 중국의 문헌에서 보이지 않는, 우리나라에만 관련 기록이 남아있는 서적이라는 것이다. 현재까지 『四庫全書』를 비롯한 중국의 서적에서 『保童秘要』의 원문 뿐 아니라 그 책의 존재에 대한 기록조차 찾지 못하였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에는 관련 기록이 여러군데 남아 남아있어서, 『朝鮮王朝實錄』과 『醫方類聚』, 『鄉藥集成方』, 『醫林撮要』 등에 『保童秘要』에 대한 기록이 있다. 김두중은 『韓國醫學史』에서 ‘본서가 소아과의 전문서로서 당시 고려인들의 실용에 많은 참고가 되었을 것은 이것이 근세 조선초에 간행된 鄉藥集成方的 소아과 부문에 九文이나 인용되었다는 데에서 넉넉히 짐작된다²⁾’고 하였는데, 향약집성방의 뿐 아니라 의방유취에 37개 조문에 300개 이상의 처방이 인용되었다는 것을 볼 때 당시 많이 읽힌 서적이라는 것은 사실일 것이다.

그리고 『保童秘要』의 저자는 劉完素로 알려져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1) 안상우, 『醫方類聚』에 대한 의사학적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0, p.1

2) 김두중, 『韓國醫學史』, 探求堂, 1981. pp. 151-152

있다. 『醫方類聚』 인용제서에는 저자가 실려 있지 않고, 저자에 대해 최초로 기록한 것은 일본에서 출판된 丹波元胤의 『中國醫籍考』이다. 현재 『中國醫籍通考』를 비롯하여 통용되는 사전류 및 중국에서 출판된 몇몇 서적에서는 모두 이를 근거로 『保童秘要』의 저자를 劉完素라고 단정하고 있다. 하지만 劉完素같은 대가의 저작이라는 것을 내용분석과 역사적인 고찰도 없이 무비판적으로 기정사실화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실제 필자가 『保童秘要』의 구성과 처방을 보았을 때 劉完素의 저작이라 하기에는 의심스러운 점이 있고, 또 丹波元胤의 기록이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保童秘要』가 현재 거의 알려지지 않은 서적이거나 『醫方類聚』나 『鄉藥集成方』의 인용문으로 미루어 보아 우리나라에서 고려시대에서 조선 초기에 걸쳐 널리 읽혀졌으리라는 점, 그리고 중국 의서에는 보이지 않고 우리나라 의서에만 기록이 남아있는 실전의서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초기 소아의학의 모습의 단편을 담고 있는 서적으로서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保童秘要』가 어떻게 현재까지 기록이 남아있는지를 살펴보고, 인용된 원문 고찰을 통해 저자에 대한 의구심을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본서를 통해 초기 소아의학의 모습의 일부나마 발견하고자 하였다.

2. 본론

1. 『保童秘要』에 대한 기록

1) 문헌상의 최초의 기록 : 『朝鮮王朝實錄』

현전하는 최초의 기록은 『朝鮮王朝實錄』의 기사이다. 태종실록³⁾에는 『保童秘要』에 관련된 기사가 하나 보이는데, 다음과 같다.

태종 12년 임진(1412, 영락 10) 8월 7일(기미) :

사관 김상직에게 충주 사고의 책을 바치도록 명하다

사관(史官) 김상직(金尙直)에게 명하여 충주 사고(忠州史庫)의 서적을 가져다 바치게 하였는데, 《소아소씨병원후론(小兒巢氏病源候論)》·《대광익회옥편(大廣益會玉篇)》·《귀곡자(鬼谷子)》·《오장육부도(五藏六賦圖)》·《신조보동비요(新彫保童秘要)》·《광제방(廣濟方)》·진랑중(陳郎中) 《약명시(藥名詩)》·《신농본초도(神農本草圖)》·《본초요괄(本草要括)》·《오음지장도(五音指掌圖)》·《광운(廣韻)》·《경전석문(經典釋文)》·《국어(國語)》·《이아(爾雅)》·《백호통(白虎通)》·유향(劉向) 《설원(說苑)》·《산해경(山海經)》·왕숙화(王叔和) 《맥결구변오(脈訣口義辯誤)》·

³⁾ 태종실록은 세종13년(1431년) 춘추관에서 편찬하여 충주사고에 봉인하였다.

6 Ⅵ 『醫方類聚』에 인용된 『保童秘要』와 朝鮮前期 小兒醫學 / 이가은

《전정록(前定錄)》·《황제소문(黃帝素問)》·《무성왕묘찬(武成王廟讚)》·《병요(兵要)》·《전후한
저명론(前後漢著明論)》·《계원필경(桂苑筆耕)》·《전한서(前漢書)》·《후한서(後漢書)》·《문수
(文粹)》·《문선(文選)》·《고려역대사적(高麗歷代事迹)》·《신당서(新唐書)》·《신비집(神祕集)》·
《책부원귀(冊府元龜)》 등의 책이었다. 또 명하였다.

“《신비집(神祕集)》은 펴보지 못하게 하고 따로 봉하여 올리라.”

임금이 그 책을 보고 말하기를,

“이 책에 실린 것은 모두 괴탄(怪誕)하고 불경(不經)한 설(說)들이다.”

하고, 대언(代言) 유사눌(柳思訥)에게 명하여 이를 불사르게 하고, 그 나머지는 춘추관(春秋館)에
내려 간직하게 하였다.⁴⁾

그리고 5일 후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태종 12년 임진(1412, 영락 10) :

8월 12일(갑자)

춘추관의 의학서적 들을 내약방에 보관하게 하다

춘추관(春秋館) 소장(所藏)의 의방제서(醫方諸書)를 내약방(內藥房)에 거두어 간직하였다.⁵⁾

‘新彫’라는 것은 다시 찍었다는 것인데, 이미 중국에서 이런 이름의 책이 들어왔는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다시 새긴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保童秘要』가 다른 이종 판본이
있을 정도로 실용적인 가치가 있는 책이라는 것은 알 수 있다. 위의 기록에 따르면 충주
사고에 장서로 보관되어있던 책을 춘추관으로, 다시 내약방⁶⁾으로 옮겼다고 하였는데, 이
책이 단순히 보관용이 아닌, 현장에서 사용된 소아 치료에 중요한 임상 실용서였다는 것
을 짐작할 수 있다.

이 『新彫保童秘要』가 의방유취에 인용된 보동비요와 동일한 판본이나 하는 것은 원
본이 없는 상태에서 단정할 수 없다. 위 기사에 실린 서적목록 중 『五臟六腑圖』에 관한
김대형의 논문⁷⁾에 의하면, 당시 『黃庭內經 五臟六腑圖』를 비롯한 여러 이본이 있었던

4) 『태종실록』 민족문화추진회, “命史官金尙直, 取忠州史庫書冊以進。《小兒巢氏病源候論》、《大廣益會玉篇》、《鬼谷子》、《五臟六腑圖》、《新彫保童秘要》、《廣濟方》、陳郎中《藥名詩》、《神農本草圖》、《本草要括》、《五音指掌圖》、《廣韻》、《經典釋文》、《國語》、《爾雅》、《白虎通》、劉向《說苑》、《山海經》、王叔和《脈訣口義辨誤》、《前定錄》、《黃帝素問》、《武成王廟讚》、《兵要》、《前後漢著明論》、《桂苑筆耕》、《前漢書》、《後漢書》、《文粹》、《文選》、《高麗歷代事迹》、《新唐書》、《神祕集》、《冊府元龜》等書冊也。且命曰：“《神祕集》, 毋得披閱, 而別封以進。”上覽其集曰: “此書所載, 皆怪誕不經之說。”命代言柳思訥焚之, 其餘下春秋館藏之。”

5) 『태종실록』, “收貯春秋館所藏醫方諸書于內藥房。”

6) 내약방 ; 내의원의 전신인 조선 초기 의학담당기관. 세종 25년(1443) 6월에 이조의 건의로 내의원으로 개칭하였음.

7) 김대형, 『醫方類聚』에 인용된 『五臟六腑圖』의 의사학적 고찰,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6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데 『新彫保童秘要』 역시 『保童秘要』의 동일계열 異本일 가능성이 있다.

『醫方類聚』가 1443년에 수집, 유취하여 1445년에 완성되었고⁸⁾, 『鄉藥集成方』은 1433년에 완성되었다는 기록을 보면 위 기사로부터 2~30년 차이가 나는데, 동일한 판본이던 동일 계열의 이본이던 간에, 이 책이 丙藥房에 보관되면서부터 의관에 의해 연구되고 임상에 활용된 경험이 누적되어 그 결과로 『鄉藥集成方』과 『醫方類聚』의 기록으로 나타났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의서에 수록된 『保童秘要』 원문 : 『鄉藥集成方』과 『醫方類聚』

『鄉藥集成方·小兒門』에는 9개 세목에 12가지 처방, 『醫方類聚·小兒門』에는 소아문 전반에 걸쳐 37개 세목에 수백가지의 처방이 인용되어 있어서 이 두 서적을 통해 우리가 현재까지 『保童秘要』의 원문을 볼 수 있게 되었다. 두 서적에 인용된 원문을 대조해 보면 『鄉藥集成方』에 인용된 12개 처방들은 다 『醫方類聚』에도 중복 인용되어 있는 것들인데, 동일한 처방이라도 인용된 형태는 약간 다르다. 한가지를 예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鄉藥集成方』

[保童秘要]治腦疳

生地黃五分 大黃一分 桔梗半分 槩皮一分

○右剉以水五大合煎取二合半去滓一歲兒一日與一合服

- 『醫方類聚』

腦疳諸方

又方: 生地黃五分大黃壹分桔梗半分槩皮壹分, 小槩是也.

右以水五大合, 煎取二合半, 去滓, 壹歲兒壹日與壹合服

두 책이 첫 문단의 주치증 표기방법이 약간 다른데, 『鄉藥集成方』이 본문 내의 전후 다른 서적의 인용문들이 모두 같은 형식의 첫 문단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보아, 통일성을 위해 조금씩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醫方類聚』의 기록이 더 원본에 가까울 것으로 생각된다. 또 『醫方類聚』에서 세주로 달려 있는 ‘小槩是也’라는 것은 『醫方類聚』편집자의 주석으로, 원본에 해당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덧붙인 기록이다.

⁸⁾ 의방류취 해제, 한의학 지식정보자원 웹서비스, 한국한의학연구원

8 || 『醫方類聚』에 인용된 『保童秘要』와 朝鮮前期 小兒醫學 / 이가은

『醫方類聚』의 인용문은 『保童秘要』의 현전하는 가장 자세한 기록이다. 일찍이 일본에서는 丹波元堅이 『醫方類聚』에서 이미 망실된 서적의 원문을 수집하여 『醫方類聚』체집본을 만든 바 있는데 그 목록 중에도 『保童秘要』가 포함되어 있다⁹⁾. 이처럼 인용문이 소아문의 거의 모든 세목에 걸쳐 있어서 이것만으로 책을 구성할 정도로 그 비중이 결코 작지 않다.

『醫方類聚』 내의 인용순서에 따른 보통비요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표1. 『醫方類聚』 인용제서의 순서

황제내경소문(黃帝內經素問) - 영추(靈樞) - 운기(運氣) - ... - 유문사친(儒門事親) - 치병백법(治病百法) - 십형삼료(十形三療) - 치법잡론(治法雜論) - 잡기구문(雜記九門) - 상한직격(傷寒直格) - 소문현기원병식(素問玄機原病式) - 보통비요(保童秘要) - 선명론(宣明論) - 동원시효방(東垣試效方) - 동원내외상변(東垣內外傷辨) - ... - 비예백요방(備預百要方) - 간기방(簡奇方) - 의경소학(醫經小學) - 소학의경(小學醫經)
--

표1에서와 같이 인용제서에서 『保童秘要』는 『素問玄機原病式』과 『宣明論』 사이에 자리하고 있다. 『醫方類聚』의 편집 원칙은 “(인용한) 방서는 모두 세대에 따라 나열하여 문을 나누어 엮어 집어넣고 세목은 나누지 않았다.”¹⁰⁾고 범례에서 밝히고 있다. 세대에 따라 나열한다는 원칙과 전후의 책들을 참조하면 보아 『保童秘要』의 저술 시기가 대략 유완소와 동시대 저술되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처럼 중국에서는 보이지 않는 『保童秘要』라는 서적이 조선의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고, 또 그 내용이 상당분량 원형대로 『醫方類聚』에 수록되어있다는 것은 『保童秘要』가 우리나라 조선 초기 소아과학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음을 의미하며, 이미 조선 초기에 소아과 영역이 분명한 전문영역을 형성하고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3) 조선 전기 의서에 보이는 마지막 흔적 : 『醫林撮要』

『醫林撮要』는 정확한 간행 년도가 밝혀있지 않으나 대략 명종 말 선조 초, 즉 『東醫寶鑑』 편찬 직전인 16세기 후반이기 때문에¹¹⁾ 앞의 두 책과 100년 이상의 차이가 난다. 『醫林撮要』에는 『保童秘要』의 원문이 직접 인용된 것은 아니고, 제주에서 딱 한군데 쓰여 있는데 다음과 같다.

뒹굴이 달아오르면서 콧물이 나오지 않는 것은 폐장(肺臟)에 쌓인 열(熱)이 뇌(腦)로 가서 진액(津液)을 마르게 하기 때문이다. 열(熱)이 있으면 코가 마르고 찬 기운이 침범하면 콧물이 흘러넘친다. 이런 때에는 목통산(木通散)이나 인리사산(咽利射散)을 쓴다(處方은 『保童秘要』의 多涕에 있

9) 三木榮, 『朝鮮醫書誌』, 大阪: 學術圖書刊行會, 1973. pp.46-48

10) 안상우, 위의 논문, p.36, “諸方, 以世代先後, 分文編入, 不分細目.”(『醫方類聚』·凡例)

11) 의림촬요 해제, 한의학 지식정보자원 웹서비스, 한국 한의학연구원

다). 콧물을 많이 흘리는 데는 인삼산(人蔘散), 전호산(前胡散), 국화산(菊花散), 강활산(羌活散), 삼소음(參蘇飲), 향소산(香蘇散)을 쓴다.¹²⁾

木通散과 咽利射散의 처방구성에 대해서는 『醫林撮要』 본문중에 나와 있지 않다. 즉 이때까지 『保童秘要』 원서가 존재했으며 ‘보동비요 다체방을 보아라’, 라고 하면 부가설명 없이 필요 없을 정도로 『醫林撮要』의 독자 정도면 다 아는 책이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木通散과 咽利射散이 곧 보동비요 다체방의 처방이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醫方類聚』에 인용된 保童秘要 多涕方은 炙甘草가 주약인 처방으로 咽利射散으로 보기 어렵고 아마 『醫方類聚』에서는 인용되지 않은 처방일 것이다. 하지만 현재 통용되는 의서 중에는 咽利射散이라는 처방을 찾아볼 수 없고, 木通散은 몇몇 의서에 보이거나 비체에 쓰인 용례는 없어서 현재로서는 정확히 어떤 처방인지 알 수 없다.

이렇게 『醫林撮要』에 한구절 삽입된 이후의 의서에서는 『保童秘要』를 인용한 구절이나 기타 그에 대한 기술이 완전히 사라질뿐더러 비슷한 처방조차 찾기 힘들다. 이는 책이 갑자기 사라져서라기 보다는, 이미 이 시대의 小兒醫學이 조선 전기와는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保童秘要』의 치료법이 더 이상 실질적으로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상을 통해 『東醫寶鑑』 전후로 나뉘어지는 조선 초기와 조선 중기 사이의 소아과 의학에 많은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여기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더 논하도록 하겠다.

4) 현재 남아있는 『保童秘要』의 흔적

ㄱ. 일본의 『醫方類聚』 채집본과 丹波元胤의 『中國醫籍考』

일본에서는 丹波元胤의 『中國醫籍考』¹³⁾에서 『保童秘要』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현재 『保童秘要』의 저자에 대해 쓴 첫 서적인데, 김두종의 『韓國醫學史』와 중국의 『中國醫籍通考』, 『中國醫籍大辭典』에서 모두 이를 인용하여 『保童秘要』가 유완소의 저작이라고 하고 있다.

丹波元胤은 多紀元胤이라고도 하는 일본의 고증학과 가문 사람으로, 당시 일본에서 최고 醫勸을 잡아 一家를 이룬 多紀家の 사람이다. 多紀元孝-元德-元簡-元胤, 元堅으로 이어지는¹⁴⁾ 세습 의사 가문으로 그 아버지 多紀元簡은 일본으로 건너간 『醫方類聚』를 구입, 소장한 장본인이다.¹⁵⁾ 그 아들 元堅은 『醫方類聚』안에서 이미 사라진지 오래된 의

12) “腦熱無涕 肺臟壅滯 內有積熱 上攻於腦 則腦熱 津液乾燥故也 得熱則乾燥 得冷則流溢也 木通散 咽利射散 保童秘要多涕方 多涕人蔘散 前胡散 菊花散 羌活散 參蘇飲 香蘇散”

13) 日本 丹波元胤 撰, 1819년에 완성되었다.

14) 富士川游, 일본의학사, 법인문화사, 2006, pp.475-480

15) 안상우, 『醫方類聚』에 대한 의학적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0, p.1

학문헌 30여종을 채록해내어 채집본을 만들었는데, 『保童秘要』도 그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아들 元胤은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의학 지식과 방대한 장서를 바탕으로 『中國醫籍考』를 저술하였다.

『醫方類聚』 채집본에 『保童秘要』가 포함되었다는 사실은 이당시 이미 『保童秘要』가 사라져서 그 형태를 알 수 없는 책이었다는 뜻이다. 그런데 『中國醫籍考』의 기록은 이와 달라서 혼란을 가져온다. 『中國醫籍考』에서 『保童秘要』와 관련된 기록은 卷七十四 方論五十二에 “[劉氏_{完素}保童秘要]二卷 存¹⁶⁾”이라는 단 한 줄로, 여기에 ‘存’이라는 표기가 어디서 기인한 것인지 알 수 없다. 아마도 당시 일본에서 그들이 엮은 채집본을 가지고 『保童秘要』가 현존한다고 기록했을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까지 가능하다. 이 『中國醫籍考』의 기록에 의거하여 후대의 많은 책에서 『保童秘要』를 의심없이 유하간의 저작으로 생각하였다. 하지만 결국 이는 한국에서 건너간 『醫方類聚』를 바탕으로 습득한 지식에 불과하며, 따라서 이것만으로 『保童秘要』의 저자가 劉完素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

『中國醫籍考』에 수록된 같은 劉完素 저작으로 알려진 『傷寒標本心法類萃』¹⁷⁾나 『素問病機氣宜保命集』¹⁸⁾에 대한 해제에서 丹波元胤은 저자에 대한 논란이 있음을 밝히고 자신의 견해를 쓰고 있으나 유독 『保童秘要』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는데, 이 또한 『保童秘要』가 이미 중국에서는 없어진 지 오래이며, 관련 기록이 없어 참고할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결국 『中國醫籍考』가 쓰여진 당시 『保童秘要』가 이미 원 형태가 없었을 것이고, 이를 근거로 유완소의 저작이라 하는 주장은 확신할 수 없다.

이상을 통해 『保童秘要』의 저자에 대한 최초의 기록인 『中國醫籍考』는 『醫方類聚』와 우리나라에서 건너간 『醫方類聚』를 통한 지식에 불과하며, ‘存’이라는 표기도 잘못될 가능성이 크고, 저자에 대하여도 의심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미 채집본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미 『保童秘要』가 『醫方類聚』에만 보존된 희귀문헌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해 준다.

ㄴ. 최근 중국에서 출판된 『保童秘要』와 그 문제점

『四庫全書·醫家類』를 비롯하여 중국의 의서에는 『保童秘要』라는 이름으로 남아있는 기록이 현재까지는 발견되지 않았는데, 후대에 출판된 중국의 사전류에서는 모두 丹波元胤의 의적고를 근거로 『保童秘要』에 대해 유완소의 저작이라고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앞에서 이미 기술하였다. 1990년대 이후로 중국에서 『保童秘要』라는 제목으로 출판한 서적이 몇가지 있는데 이는 『醫方類聚』의 내용을 단순히 수집해서 출판한 것

16) 丹波元胤, 『中國醫籍考』, 인민위생출판사, p1002

17) 위의 책, p.410

18) 위의 책, p.654

이다.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천진과학기술출판사, 『金元四大家 醫學全書』, 1992**

『保童秘要』를 유완소 의학전서에 포함시켰다. 『醫方類聚』에서 『保童秘要』 인용문만 발췌 수록하였다.

- **상해중의약대학출판사, 『保童秘要』, 1996**

『醫方類聚』에서 『保童秘要』 인용 원문을 『醫方類聚』 제목 차례대로 뽑았고, 맨 앞에 『宣明論方』의 론을 덧붙였으며, 『宣明論方』의 처방을 각 과마다 부록 형식으로 첨가하였다. 마지막에는 『素問病機宜命集』의 小兒斑疹論을 실었다. 모두 『醫方類聚』에 인용된 것을 채록한 것으로, 이는 『醫方類聚』를 바탕으로 劉完素의 소아과 서적을 총 망라한다는 개념으로 출판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保童秘要』가 劉完素 서적이 확실하지 않고, 『宣明論方』 또한 劉完素의 고유 저작이 아닌 시대에 걸쳐 내용에 살이 붙어 점차 15권으로 늘어난 서적이라는 점에서 두 서적을 엮은 것은 무의미한 편집이다. 단지 유완소의 소아과 의론과 처방이라는 기록만으로 내용 고찰 없이 단정하여 출판한 책에 불과하다.

또 이 책에는 중국에서 출판된 『醫方類聚』의 교감사항까지 그대로 실려 있어서 어디까지가 원주이고 어디까지가 후대에 덧붙여진 것인지 알 수 없어 문제가 된다.

- **第二軍醫大學出版社, 『保童秘要』, 2005**

이처럼 중국에서 최근 출판된 『保童秘要』의 특징은 저자에 대해 『中國醫籍考』의 기록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서, 『醫方類聚』에 직접 인용된 『保童秘要』 원문을 단순 발췌하여 엮었으며, 심지어 의방유취 원주와 후대 중국의 교감사항까지 구분없이 마구잡이로 포함되어 있어서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3. 『保童秘要』를 통해 본 조선초기 소아의학의 면모

1) 보동비요를 통해 본 조선 초기 소아과의 주요 질환

『保童秘要』의 원래 목차가 어떠한지는 알 수 없지만, 『醫方類聚』 목차와 같지 않았을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어쨌든 원서가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保童秘要』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은 『醫方類聚』 목차별로 해당하는 인용구를 뽑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중국에서 출판된 두 서적도 이와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醫方類聚·小兒門』의 세목 중 보동비요가 인용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표2. 『醫方類聚』 소아문 세목 중 『保童秘要』가 인용된 것.

浴兒, 臍病, 口舌, 頭面, 眼, 耳, 鼻, 咽喉, 龜背 附龜胸, 手脚, 行遲, 心腹痛, 霍亂, 吐衄, 咳嗽, 瘡, 黃疸, 宿食, 積聚, 腹脹, 癰疽, 湯火傷, 丹毒, 癩疹, 大小便, 諸淋, 諸痢, 癩疔 附陰腫, 諸蟲, 諸疳, 驚癇, 啼, 諸風, 傷寒, 諸熱, 雜病

적어도 이 정도의 질환은 조선 초기 소아과에서 다루고 있는 분야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주로 初生病과 소아의 특이 질환에 관한 질병을 다루고 있다. 이 중에도 특히 분량이 많고 강조된 부분이 咳嗽, 癰疽, 諸痢, 諸疳, 驚癇 등이다.

특히 諸痢와 諸疳을 비롯하여 霍亂, 宿食, 積聚, 腹脹 등의 소화기계 질환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 중에서도 諸疳에서는 疳疾을 분류하여 각 처방을 상세히 논하고 있다. 또한 諸痢에 인용된 첫 번째 처방이 ‘疳痢極甚方’인데, 당시로서는 매우 심각한 병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질환에 대한 論과 處方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이 시기에 영양 장애로 인한 질병이 많았다는 것을 뜻하는데, 아이들의 소화기질환이 그만큼 위중하고 흔한 질환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驚癇에 대하여는 고대부터 강조되어 왔는데, 보동비요에서는 未滿月及出月, 百日後, 1·2歲, 4·5歲, 6·7歲로 각 연령별 발하는 경간을 구분하여 기록한 것이 특이하다. 또 咳嗽에 대해서도 연령에 따른 치료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100日已來, 3歲, 5·6歲, 7·8歲에 쓰는 처방을 따로 실었다. 이는 千金方 서례의 ‘夫生民之道, 莫不以養小爲大’라는 말처럼, 소아과의 역할이 어린아이를 어른으로 기르는 것임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 즉 당시 소아과가 성인과 다른 소아 질환의 특이성을 성장 발달 과정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연령에 따라 처방을 달리하였다는 것은 소아과가 매우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한 분야를 이루었음을 의미한다.

2) 처방에서 보이는 의론의 특징

앞에서 언급했듯이 『保童秘要』는 현재 丹波元胤의 『中國醫籍考』를 근거로 유완소의 저작이라고 인정되는 추세이다. 따라서 유완소의 의서 중 가장 소아과에 대한 의론이 많은 『宣明論方』과 비교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드러냄으로써 『保童秘要』의 특징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宣明論方·小兒門』에서는 의론과 함께 14종의 처방을 싣고 있으며, 그 외에도 풍문 열문 담음문 등에 걸쳐 소아에 대한 論과 方을 기록하고 있다. 유완소가 소아병을 보는 기본적인 관점은 『宣明論方·小兒論』에서 ‘대체로 小兒病은 純陽으로 熱이 많고 冷이 적다¹⁹⁾’는 것으로, 유완소의 火熱理論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하지만 소아문의 14종의 처방을 포함한 『宣明論方』의 처방들은 『保童秘要』에 수록된 처방과 같은 것이 없고

19) “大概小兒病者純陽, 熱多冷少.”

심지어 비슷한 처방조차 찾기 힘들다.

단순히 처방 구성의 차이 뿐 아니라, 의론에서 보이는 의학사상에도 두 책이 상통하는 점은 그다지 찾을 수 없다. 『宣明論方』의 소아론에서 특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소아감질인데, '小兒가 脾胃으로 痢瀉하는 것은 모두 熱이 심한 것이고, 急驚으로 瀉痢하는데 青色이 많은 것은 熱證이 분명하다²⁰⁾'라는 견해를 밝혔고, 실제 처방에서도 小兒疳積熱에 찬 약이 주종인 消痞丸을 사용하였는데 처방 구성이 다음과 같다.

『宣明論方』 消痞丸

黃連 甘葛 各一兩 黃芩 大黃 黃柏 梔子 薄荷 藿香 濃朴 茴香 炒. 各半兩 木香 辣桂 各一分 青黛一兩, 研 牽牛 二兩

황련 감갈이 군약이며 대부분 찬 약으로 구성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保童秘要』에서는 감질 치료에 대해 찬 약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것도 많았는데, 대표적으로 檳榔丸 같은 처방이 있다.

『保童秘要』

治一切疳, 檳榔丸方:

白檳榔 肉豆蔻 各二枚 附子 當歸 青橘皮 吳茱萸 桂心 各二分 青木香 白蕪仁 大黃 炮乾薑 玄荳生用 胡黃連 各壹分 續芫子 三分, 去殼

일체의 감질을 치료하는 약이라고 쓰여있는데 백빈랑, 육두구, 부자, 당귀, 오수유 등 대부분 따뜻한 약재로 이루어져 있어 사뭇 다른 구성형태이다. 또 이뿐 아니라, 乾漆 狗骨 蝸牛殼 夜明砂로 구성된 乾漆丸方이나 白礬 乾地龍 등으로 구성된 乾漆丸을 治疳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처방으로 두고 있어서 『宣明論方』과는 도무지 유사점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한 사람이 썼다고 보기에는 의론과 처방, 처방의 구성 약재의 차이가 크다.

이를 통해 『保童秘要』의 저자에 대한 몇가지 가능성을 제시해 볼 수 있다.

한가지는 『保童秘要』가 유완소의 저작이나 본인이 직접 저술한 것이 아닌 기존의 책을 정리해서 펴냈을 가능성이고, 또 한가지는 유완소의 저작으로 한국에 알려졌으나 전혀 관계없는, 타인이 가탁한 서적일 가능성이다. 어느 쪽이든 간에, 적어도 『保童秘要』가 火熱論을 비롯한 劉河間의 학설을 반영한 서적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3) 사용약재와 서술 형식상의 특징

20) "小兒脾胃痢瀉者, 皆熱甚, 急驚瀉痢, 色多青, 爲熱證明矣."

ㄱ. 처방 구성 약재의 특징

『保童秘要』에서는 다른 서적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약재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靑羊腦髓, 夜飛鳥, 秋果子, 蟒蛇膽 등은 다른 의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약재들이다. 이는 이 서적이 중국의 주류 의학 계열이 아닌 변방지방의 서적일 가능성도 보여준다. 또한 유난히 兔肝, 狗骨, 猪膽, 蚌蛇膽, 狐陰莖 등 동물성 약재 사용이 많고, 牛糞, 鷄糞, 羊糞, 靑羊糞, 鴿糞, 驢糞 등의 동물 배설물도 많이 쓰인다. 청양의 뇌수로 환을 빚는 방법도 보이는데, 다음과 같다.

腦乾無涕方:

升麻 梔子 防風各三分

右爲末, 取靑羊腦髓和爲丸 如梧子大, 每一歲兒一服五丸, 溫水研化下, 日再服.

羊腦髓, 狐陰莖, 磨刀石, 赤蜜과 같은 약재는 『保童秘要』 이외에 『聖惠方』과 『千金方』, 『聖濟總錄』 등 의서에서 보이고 후대 의서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현재 잘 사용하지 않는 약재가 다량 수록되어 있는 것은 조선 전기의 소아의학이 현재와 사뭇 다른 모습이었음을 보여주며, 또한 전과 후의 의학 이론과 의술의 변화가 매우 컸다는 것을 뜻한다.

ㄴ. 처방 서술 기록 형식

『保童秘要』의 처방들은 처방명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처방명이 있는 것도 앞에서와 같이 靑漆丸方 처럼 方이라는 글자가 붙고, 증상에 方을 붙여 多涕方, 大便靑色方, 赤白痢諸方 같이 표기한 것이 많은데, 그나마 비슷한 질환에 쓰이는 처방은 又方이라고 하고 약재만 써 놓은 것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런 식의 표기는 주후방, 천금요방, 외대비요에서 많이 쓰이나 이후의 의서에서는 별로 쓰이지 않는, 체계화되지 않은 방식이다. 『宣明論方』 같은 경우 처방명 아래에 해당하는 증상을 자세하게 기록하는 체계가 자리 잡아 기술 형식이 통일되게 격식을 갖추고 있어 이역시 차이가 크다.

또 『保童秘要』는 탕제법을 以水五合, 煎取三合이라는 식으로 매 처방의 탕전법을 기술하고 있는데 煎取라는 표현도 후대에는 잘 쓰이지 않는 표현이며, 간혹 제법에 보이는 熟調라는 표현도 『外臺秘要』, 『聖惠方』 등 상당히 고대의 서적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이다. 표현 형식도 다듬어지지 않은 경험방적인 형식을 띠고 있다.

ㄷ. 『千金方』 및 『聖惠方』과의 관련성

위에서 언급했듯이 『保童秘要』는 『千金方』 및 『聖惠方』과 중복되는 약재 및 문체가 많다. 이 이외에도 『醫方類聚』를 통해 두 서적과 『保童秘要』의 결정적인 상관관

계를 알 수 있는데, 『醫方類聚』의 서술 특징은 중복되는 처방을 삭제하고 세주를 달아 다른 책에서의 용량이나 병명이 어떻게 다르다는 것을 표기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였다. 따라서 세주에 용량이 비교된 것을 보면 두 인용서에 유사한 혹은 같은 처방이 실려있다는 뜻이 된다.

『醫方類聚』에서 『千金方』 인용문 가운데 『保童秘要』와 비교하여 주석을 붙여 놓은 것이 4곳 나온다. 『聖惠方』과 같이 비교되어 있다.

治小兒臍赤腫方:

杏仁半兩 聖惠方, 保童秘要湯洗, 去皮尖, 細研 豬頰車髓十八銖 聖惠方半兩, 秘要半合

右二味, 先研杏仁如脂, 和髓傳臍中腫上.

『聖惠方』 인용문에는 『保童秘要』와 비교한 것이 더 많은데, 한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治小兒臍瘡方: 保童秘要臍着風, 汁出

黃蘗壹兩 釜底黑煤 三分, 秘要已上等分 亂髮灰一分 秘要少許

右件藥, 先搗黃蘗爲末, 入二味, 合研令勻, 以傳臍中. 秘要少少擊之.

또 『保童秘要』 원문 중에도 『聖惠方』과 비교한 세주가 보인다.

驚犀角飲子. 沈香膏方見本書卷二百五十三小兒門十五諸疳一. 方. 方見聖惠方

즉 동일한 처방이 『聖惠方』에 있으므로 여기서서는 실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처럼 『保童秘要』의 원문에서 『千金方』, 『聖惠方』 등과 겹치는 내용은 『醫方類聚』에 직접 인용되지 않은 것이 많았을 것이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保童秘要』는 『小兒藥證直訣』과는 다른 계통의 서적으로, 오히려 『聖惠方』, 『千金方』 등의 당송 시대의 서적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사용약재, 문투나 용례 등이 현재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체계화된 의문서라기보다는 다분히 경험방적인 특징이 강한 서적으로 생각된다. 이를 통해 조선 전기 小兒醫學의 특징의 단면을 볼 수 있는데, 錢乙의 『小兒藥證直訣』의 五臟辨證이 『東醫寶鑑』에 흡수되어 조선 중기의 소아의학을 형성하기 이전의 모습에 대해 볼 수 있는 단서이다. 태종 실록에 함께 실린 『五臟六腑圖』는 현재의 장부개념과는 다른 개념의 五臟辨證을 논하고 있는데, 이는 조선 전기에는 아직 현재의 오장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다는 방증이 된다.²¹⁾ 확대하면 『鄉藥集成方』·『醫方類聚』의 조선 전기 소아의학과 『醫林撮要』라는 과도기

를 거쳐 『東醫寶鑑』에서 완성되는 조선 중기의 소아의학간의 차이와 흐름까지 추정이 가능할 것으로, 향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3. 결론

이상의 고찰을 통해 다음과 같이 결론을 정리할 수 있다.

1. 『保童秘要』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朝鮮王朝實錄』 태종실록의 기사이며, 『鄉藥集成方』과 『醫方類聚』의 인용문을 통해 본문의 모습을 일부 볼 수 있다. 이처럼 중국의 문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保童秘要』라는 서적에 대한 기록이 우리나라 조선 초기에 여럿 남아있다는 것은, 당시 우리나라 의학의 범주가 그만큼 광범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조선 초기, 전문 영역으로서의 소아의학의 존재를 입증해 주는 증거가 된다.

2. 일본의 고증학파인 多紀家에서 『醫方類聚』의 내용을 바탕으로 채집본이 만들어졌는데, 『保童秘要』는 이 시기에 이미 망실되었음을 알 수 있다. 때문에 동시대에 출판된 丹波元胤의 『中國醫籍考』에서 유완소의 저서라고 표기한 것은 진위가 의심되는 점이 있으며, 실제로 분명한 것은 『保童秘要』는 그 내용상 火熱論을 비롯한 劉完素의 의론과는 다른 경향성의 서적이라는 것이다. 중국의적통고를 비롯한 사전류에는 모두 『中國醫籍考』를 근거로 『保童秘要』의 저자를 劉完素라 적고 있으며, 최근 중국에서 출판한 『保童秘要』도 내용과 역사적 고증 없이 유완소의 저작으로 단정짓고 있다. 특히 上海中醫藥大學出版社에서 출판한 책은 『醫方類聚』에서 단순 발췌한 保童秘要의 본문에 醫方類聚의 원래 주석, 중국의 현행 통행본인 취진본 의방유취의 교감사항까지 한데 뒤섞여있는데, 이는 향후 연구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3. 『保童秘要』는 고려와 조선 초기에 널리 읽혀졌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본문 고찰을 통해 『小兒藥證直訣』의 五臟辨證는 다른 小兒醫學의 계통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조선 전기의 小兒醫學의 모습을 규정하는 단서가 되며, 향후 『東醫寶鑑』으로 대표되는 조선 중기의 소아의학과에 대해서 추가 연구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4. 『保童秘要』의 본문 고찰을 통해 조선 전기의 소아과학의 일부분을 살펴보면, 우선

2) 김대형의 앞의 논문 참조

은 질병 영역이 初生病을 포함하여 소아의 특이 질환을 중심으로 다루었음을 알 수 있다. 소아의 疳病과 痢疾 등 소아기계 질환에 대해 주요하게 다루고 있음을 보아 당시 소아의 영양 장애에 따른 질환이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驚癇과 咳嗽 등에 대해서 연령에 따른 치료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당시 소아의학이 성인과 다른 소아 질환의 특이성을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 인식하고 그에 따라 치법을 달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參考文獻]

서적류

-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제48기 졸업준비위원회 편, 『새천년 鄉藥集成方』, 서울 : 정담, 2000
김두중, 『韓國醫學史』, 探求堂, 1981.
김남일 맹웅재 外, 『강좌 중국의학사』, 大成醫學社, 2006.
김남일 맹웅재 外, 『韓醫學通史』, 大成醫學社, 2006.
金禮蒙 等撰, 浙江省中醫研究所 · 湖州中醫學院 校, 『醫方類聚』, 人民衛生出版社, 1981
金禮蒙 等撰. 浙江省中醫研究院 校閱. 『醫方類聚』. 서울 : 醫聖堂 영인, 1993
楊禮壽 原著, 조현영 外 共譯, 國譯韓醫學大系 『醫林撮要』, 海東醫學社, 1999.
王軍 外, 『金元四大家 醫學全書』,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2
劉完素, 『保童秘要』, 上海中醫藥大學出版社, 1996
劉完素, 『宣明論方』, 欽定四庫全書 子部 醫家類, 大成醫學社 영인, 1995
三木榮, 『朝鮮醫書誌』, 大阪: 學術圖書刊行會, 1973.
錢乙 著, 『小兒藥證直訣』,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8
陳大舜 外 譯, 김남일 맹웅재 外 譯, 『各家學說』, 大成醫學社, 2001.
許浚, 『東醫寶鑑』, 南山堂, 1998

논문류

- 김남일, 우리나라 傳統醫藥技術의 中國醫學 輸入後 土着化에 대한 研究, 한국의사학회지 16권 1호, 2003.
김대형, 『醫方類聚』에 인용된 『五臟六腑圖』의 의사학적 고찰,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6
김홍균, 『醫林撮要』의 의사학적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0.
류명숙, 『東醫寶鑑』에 나타난 錢乙의 五臟辨證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5.
안상우, 『醫方類聚』에 대한 의사학적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0.
안상우, 『醫方類聚』 편찬과 조선전기의서, 한국의사학회지, 1999

검색공구류

裘沛然 主編, 『中國醫籍大辭典』,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2.

丹波元胤. 『中國醫籍考』.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孫思邈. 『備急千金要方』. 文淵閣四庫全書, 여강, 1988.

嚴世蕓 主編, 『中國醫籍通考』, 醫聖堂, 1993.

홍원식 외, 『한의학대사전·의사문헌편』, 한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1985.

『文淵閣四庫全書電子版 CD』, 上海人民出版社 迪志文化出版有限公司, 1999.

민족문화추진회 홈페이지 원문서비스, <http://www.minchu.or.kr>

한의학지식정보자원 웹서비스, <http://www.jisik.kiom.re.kr>